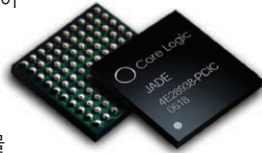




코아로직, 모바일TV용 멀티미디어 솔루션 칩 출시

코아로직(대표 황기수 www.corelogic.co.kr)은 3일 창립 9주년을 맞아 다양한 모바일TV 규격을 모두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MAP) '제이드'를 출시했다. 제이드는 각종 비디오 및 오디오 규격을 대부분 지원하고 특히 전자상거래(e커머스)용 데이터 방송 기능도 제공하는 토털 멀티미디어 솔루션으로 휴대폰은 물론 내비게이션, PMP 등 각종 컨슈머 제품에 두루 쓰일 수 있다. 제이드는 차세대 데이터압축 규격인 H.264 디코더를 내장, 위성 및 지상파 DMB는 물론 유럽의 DVB-H 방송을 D1급(720X480)으로 초당 30 프레임까지 재생·녹화할 수 있으며 500만 화소의 카메라 기능도 제공한다. 제이드를 휴대폰에 탑재할 경우 영상통화는 물론 내장된 영상을 TV로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이 제품은 모바일 콘텐츠저작권관리(DRM)와 USB2.0, 미디어 트랜스퍼 프로토콜(MTP) 지원을 통해 단말기 간에 콘텐츠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블루투스 기능도 함께 지원하며, 저전력 소모 설계로 뮤직폰 솔루션에도 적합하다. 코아로직 황기수 사장은 "이번에 출시된 제이드는 코아로직이 2007년 사업영역을 휴대폰 부문에서 디지털 컨슈머 제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솔루션"이라며 "2007년 제 2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휴대폰 및 디지털 컨슈머 제품에 구현되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플랫폼 솔루션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시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없는 단말기 업체들에게도 응용 솔루션을 지원해 고객이 적시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엠씨에스로직, DMB 멀티미디어 칩 개발

엠씨에스로직(대표 남상윤 www.mcslogic.co.kr)은 다양한 비디오·오디오 코덱을 내장한 DMB 멀티미디어 칩 'MLC500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H.264 코덱을 비롯하여, WMV·MPEG-4·DivX·XviD·JPEG·BMP·GIF 등 비디오/이미지 코덱과, MP3·WMA·Ogg·AAC/AAC+·G.723 등의 오디오 코덱, 그리고 ADPCM과 자체 개발한 MLPCM 등의 보이스 코덱을 탑재하고 있다. MLC5000은 SD급의 화질을 보장하며 블루투스 기능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DMB 데이터 방송인 실시간교통방송서비스(TPEG)·전자편성표(EPG)·양방향 데이터 서비스(BiFS)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남상윤 사장은 "이 제품은 올 2분기 이내 양산할 계획"이라며 "기존 DMB 전용 단말기 뿐 아니라 PMP나 내비게이션 MP3플레이어 등에서 Navigation, 고성능 MP3플레이어 등 각종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에 DMB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 제품이 융복합 DMB 기기의 핵심 부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무선 디지털 전화기용 프로세서 개발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 서승모 www.cnstech.co.kr)는 무선 디지털 전화기(DCP)에서 벨소리나 유저인터페이스(UI)와 같은 여러 기능을 제어하는 CPU '레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씨앤에스가 이번에 개발한 레아를 장착하면 기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달리 DCP도 일반 휴대폰처럼 64화음 이상의 벨소리를 즐길 수 있고 바탕화면도 꾸밀 수 있게 된다. 깨끗하고 선명한 액정화면도 볼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기존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DCP 개발도 활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레아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씨앤에스 측은 기대했다. 단말기 업체들은 레아를 무선 디지털 전화기 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전화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씨앤에스테크놀로지가 지난 해 개발한 인터넷전화 전용 칩 크로노스와 함께 토털 솔루션으로도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MP3플레이어, PMP 등 ARM 기반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어, 휴대폰 단말기에서 UI 개선을 위한 CPU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서승모 사장은 "집 전화도 디지털전화 시대인 2.0 시대로 진입하며 가정용 전화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고 있다"며 "디지털 전화기·무선 인터넷전화기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솔루션 경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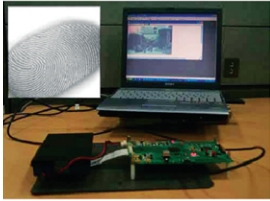


유니퀘스트, 드림텍 인수

유니퀘스트(대표 임창완 www.uniquet.co.kr)가 휴대폰 부품 업체인 드림텍(대표 조경자)의 지분 45%를 약 90억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자회사 퀘스트랩스를 통해 블루투스 시장에 진출한 유니퀘스트는 이번 인수를 통해 반도체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블루투스와 관련된 모든 기술에 대해 풀라인업을 갖췄다. 드림텍은 휴대폰용 키패드 인쇄회로기판(PCB)과 블루투스 모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드림텍은 휴대폰용 충전기와 휴대폰용 키패드 PCB 사업으로 출발해 지난해부터 블루투스 모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휴대폰 부품 전문 업체로, 2003년 매출 318억원에서 2006년 521억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18% 성장 중인 업체다. 유니퀘스트는 자회사 퀘스트랩스와 드림텍을 통해 블루투스 분야 사업을 집중 키울 계획이다. 임창완 유니퀘스트 사장은 "퀘스트랩스를 통해 블루투스 액세서리를 개발하며 휴대폰 관련 분야에 발을 들여 놓은 지 1년 여 만에 드림텍을 인수했다"며 "휴대폰 키패드와 블루투스 응용 제품이 속해 있는 휴대폰 부품시장의 성장 전망을 감안할 때 휴대폰 분야 사업을 키우고 또 다양한 응용 분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엘아이, 필름 없이도 터치스크린 구현이 가능한 반도체 개발

티엘아이(대표 김달수 www.tli.co.kr)는 필름 없이도 TFT LCD 디스플레이를 터치스크린으로 만들 수 있는 리드아웃 IC 'TL5109SR'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터치스크린은 하단의 유리 와 상단의 필름으로 구성돼 터치한 순간 정전용량의 변화나 압력의 변화를 측정해 좌표값을 인식하게 된다. 이 때 터치스크린의 구성품은 유리 와 필름,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DC)와



드라이버 등이다. 티엘아가 개발한 리드아웃 IC를 사용하면 터치한 순간에 TFT LCD에 비친 그림자나 영상을 리드아웃 IC가 읽어내 이를 좌표로 반영하기 때문에 정전용량이나 압력 변화를 측정해야 하는 별도의 필름이 필요없다. 또한 리드아웃 IC 자체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기 때문에 ADC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원가절감은 물론 디스플레이의 두께도 줄일 수 있다. 이 리드아웃 IC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터치스크린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최근 터치스크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리드아웃 IC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엠텍비전, 뮤직폰 전용 멀티미디어 칩 개발

엠텍비전(대표 이성민 www.mtelevision.com)은 뮤직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뮤직폰 전용 멀티미디어 칩 '아스톤·사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음악 전용 프로세스를 사용해 기존 멀티미디어 칩에 비해 음악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전력소모도 2배 이상 줄였다. 기존 뮤직폰의 음악 재생시간은 15시간 정도이지만, 엠텍비전의 아스톤을 사용할 경우 40시간에서 최대 70시간까지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스톤은 뮤직폰에서 모든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디오 코덱을 모두 지원하며, 뮤직폰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 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USB2.0·미디어트랜스퍼프로토콜(MTP)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 제품은 베이스밴드 칩 없이도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MP3플레이어 등 휴대폰 이외의 오디오 전용 휴대용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엠텍비전은 이 제품을 2분기부터 국내외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매출은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에트랩-레이디오펀스, 지그비 마우스 개발

에트랩(대표 이방원 www.atlab.co.kr)은 국내 지그비 칩 전문 업체인 레이디오펀스(대표 왕성화)와 협력, 지그비를 활용한 무선마우스를 개발했다. 지그비는 근거리무선통신 규격 중 하나로 홈네트워크 제어에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며, 일반적으로 무선 마우스는 27MHz대역의 주파수를 통해 신호를 주고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에트랩과 레이디오펀스는 자사의 칩이 들어가는 제품의 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마우스를 개발했다. 에트랩은 광마우스 센서칩을 레이디오펀스는 지그비 무선 통신 부분을 맡아 함께 개발했으며, 이 솔루션을 확산하기 위해 완성품인 '지그비 마우스'까지 직접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지그비 마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마우스를 홈네트워크 제어 단말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전력소모가 적다는 점이다. 에트랩과 레이디오펀스가 첫 선을 보인 지그비 마우스는 PC와 연결해 무선 마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동제어 등 홈네트워크 제어 단말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그비는 근거리무선통신규격 중 전력소모가 가장 적은 규격으로 배터리 사용시간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다.

홈캐스트, 태국에 1250만달러치 IP셋톱박스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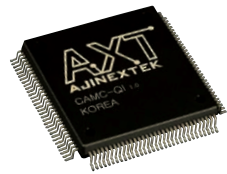
홈캐스트(대표 이보선 www.homecast.net)가 태국의 신 셋톱박스(Shin Satellite)와 고화질(HD) 및 개인영상녹화기(PVR) 기능이 내장된 하이브리드 IP 셋톱박스를 공급하기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캐스트는 향후 2년간 최소 1250만달러 상당의 IP셋톱박스를 태국에 수출하게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IP셋톱박스는 국내에서도 출시된 적이 없는 하이엔드급으로 HD와 PVR 등 첨단 부가기능이 내장돼 있다. 신 셋톱박스는 태국의 방송통신사업자로 타이콤1·2·3·4·5의 5개 방송·통신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는 위성 인터넷서비스인 'IP스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보선 홈캐스트 사장은 "국내서조차 출시된 바 없는 최고 사양급 IP 셋톱박스의 수출에 성공,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해외 IP셋톱박스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픽스트리, HE AAC(V2) 디코더 솔루션 개발

멀티미디어 솔루션 업체 픽스트리(대표 신재섭 www.pixtree.com)가 'HE AAC(V2)' 오디오코덱 디코더 솔루션을 개발했다. HE AAC(V2)는 압축률이 높은 오디오코덱으로 현재 IPTV, DVB-H, 원세그 등에 적용됐다. 픽스트리는 "이번에 개발한 디코더 솔루션은 기존 제품보다 효율성을 20% 이상 높였다"며 "이를 적용한 단말 제조사는 저전력, 고효율의 휴대이동방송 단말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픽스트리는 디코더 솔루션을 모바일 환경 기반으로 개발했지만 시장 상황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계획이다. 신재섭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솔루션을 국내 단말 제조사에 공급, 경쟁력 있는 우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진엑스텍, 4축 모션 제어 칩 국산화 성공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PCB, 자동화 검사 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4축 모션 제어 칩이 국내에서도 개발됐다. 모션 제어 보드 및 시스템 플랫폼 전문기업인 아진엑스텍(대표 김창호 www.ajinextek.com)은 최근 산자부의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고속, 고정밀의 4축 모션 제어 칩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고속리니어 모터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로봇·CNC 등 6축 미만의 전용장비 시장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4축 모션 제어 칩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왔다. 펄스 출력형 모션 제어 주문형반도체설계(ASIC) 기술을 통해 정밀 모션 제어용 반도체칩(CAMC-Q)으로 개발된 이 제품은 펄스를 입력받는 모든 종류의 스텝, 서보 드라이버와 호환도 가능하다. 최고 13,107.2MHz 펄스를 출력할 수 있으며 Δ지정위치 구동 Δ조그 구동 Δ원점 검색 Δ외부펄스 입력 구동 Δ갠트리 모드 구동 등 다양한 종류의 모션 제어를 할 수 있다. 한 칩에 4축이 통합된 형태로 각 축의 독립적 제어가 가능하다. 축간 보간 및 동기 구동 등의 다축 제어 기능도 제공한다. 1축 및 2축 모션 제어 칩을 이미 개발, 시판 중인 이 업체는 이번 4축 모션 제어 칩이 공간적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비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 : 전자신문 www.etnews.co.kr